



나눔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예제 17,22-24

[화답송] 시편 92(91), 2-3.13-14.15-16 (◎2ㄱ 참조)



(후렴) 주님을 찬송 하여 - 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 하시 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제2독서] 2 코린 5,6-1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마르코 4,26-34

[성가안내]

- 입당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어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201] 은총의 샘

미 사 봉 헌

영미사

배재철,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배재철, 가디나구스맨
유혁일
목영승
윤기성 모니카, 황현상
차덕순, 이재영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생미사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졸업 축하)
이영애 레지나, 이정진 안토니오
김가롤로 신부, 박티모테아 수녀
유기호 베네딕도, 진문자 스킨라스티카부부
강호영, 김순자, 이 마리로사
김효진 율리안나
송 다니엘 대원
박신희 리나, 김수정 에디또
최소피아 (생일 축하)
김보현 엘리사벳
김수열 앤토니 (축일, 생일 축하)

봉헌

울리타 김경련
울리타 김경련
유희순 그레이스
이경자 율리안나
이영애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김지영 유스티나

봉헌

이영애 레지나 가족
이영애 레지나 가족
이영애 레지나
익명
안선정 마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송명자 리디아
익명
최 미카엘라
이 마리로사
부모, 김성중 다두,
효진 율리아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6월 13일	박기웅 사도요한	김진섭 야고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안선정 마리안나
6월 20일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완준 필립보	유정옥 유스티나

● 예수 성심 성월에...

주님, 제 기도가 당신의 성심을 향할 때
거룩한 기쁨이 차오르는 열정과 환희의 성월이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닮으며 푸른 영성이 무성해지는
희망의 성월 이게 하시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충전의 쉼터,
성심의 그늘에 머무름이 익숙한 믿음의 사람이게 하소서! 아멘.

● 신부님과 함께 하는 성경 묵상 (대면)

일정 부분의 성경을 각자 읽고, 묵상 한후에 한 주일에 한번 신부님과
함께 대면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신 청 : 신부님께 이름과 연락처 종이에 적어 주세요.

첫모임 : 2021. 6. 13. (오늘) 주일 미사 후

장 소 : 2층 교리실

준비물 : 없음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팽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박 알버트 부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6-201-0175)** 일시와 장소는 회원들이 모이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며 본당 신자들의 화합과 하나 되는 것 외에도 **선교의 목적과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신자, 미국인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첫 모임 : 2021. 6. 27 (주일)

시 간 : 14:00 ~ 16:00

장 소 : 2층 교리실

준비물 : 없음

● 꾸리아 Zoon Meeting 안내입니다.

일 시 : 2021. 6. 20. (일) 오후 1:00

Meeting ID : 812 7711 9634

Passcode : 7336

●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월례모임

일 시 : 2021. 6. 20. 주일 미사후

장 소 : 2층 교리실 (사무실 옆방)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울뜨레아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 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 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 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 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 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이재오(클레멘트)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김동희(헬레나)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용기(요셉) |
| 정창동(폴리나) | 고종호(마태오) |
| 지군자(스테파니) | 홍봉운(바오로)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 |

[2021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온.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광고주를 찾습니다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4,26-34)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겪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장소이며, ‘여기’에서 마주하는 현실 보다는 더 좋은 새로운 차원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는 하느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은 다른 본질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는 하느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전제할 것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행위와 잠을 자는 기다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홀로 완성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돕고 노력하고, 동시에 기다리며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성장하고 나면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치를 뽐게 됩니다. 작아서 그 시작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작은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무수히 기도해 왔지요.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하느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노력과 잠을 자는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닌 모습이 겨자씨보다 작은 모습일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희망을 이루어 드릴 차례입니다.

- 박 형순 바오로 신부 -

예수 성심 대축일

6월 11일 (금)

2021년 예수 성심 대축일은 6월 11일 금요일에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신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 퍼지면서 보편화 되었습니다. 비오 9세 교황은 교회 전례력에 도입하여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에 따라, 1996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모든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로 부활시기 후 계속 되던 대축일들이 끝나고 연중시기로 돌아갑니다.

사제의 제의색과 제대보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까운 주변의 성당에 들려 성체 조배를 평소보다 좀 더 자주 하는 ‘예수 성심 성월’이 되었으면 합니다.